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선진국형 광고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야

21세기 들어 문화의 힘은 진정한 선진국을 가리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글로벌 10대 문화강국으로서, 지난 해 우리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3조 2천억 원을 넘어섰고, 무려 1,3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열정과 끈기로 노력해온 매체사, 콘텐츠 제작사, 그리고 특히 광고인 여러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고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콘텐츠산업으로, 자동차·전자제품은 물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국제 무대에서 ‘Made in Korea’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그치지 말고 디지털 혁신과 기술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광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적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광고산업과 시장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광고 활성화를 위해 방송 플랫폼의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신문·방송 등 매체의 협찬 의존도를 줄이고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광고효과 극대화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투자과 혁신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ABC 부수와 시청률, 그리고 기사 클릭수 등 객관적 지표가 광고집행의 기준이 되는 선진국형 광고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고주협회를 비롯한 광고계는 대한민국 광고시장의 선순환적 성장을 향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해법을 제시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AA**